

銘文資料를 통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性格

김 봉 준*

- I. 머리말
- II. 조선의 자기 공납제와 백자수취체제의 변화
- III. 廣州 牛山里 출토 명문자기의 종류와 성격
- IV. 명문자료를 통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성격
- V. 맺음말

I. 머리말

廣州 牛山里는 『世宗實錄』 「地理志」의 廣州牧에 예속된 伐乙川, 石掘里, 羔峴과 함께 下品 磁器所인 所山으로 기록된 곳으로 15세기 전반부터 활발한 요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다.¹ 冠山과 鷺子峯 사이를 흐르는 牛山川 주변의 가마터들에서 무문백자, 상감백자, 청화백자, 조선청자 등 다종다양한 조선시대 도자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牛山里 지역은 15-16세기 조선 도자의 양상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곳이라 하겠다.² 특히 廣州 牛山里에는 '內

*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사

¹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磁器所四, 一在州東伐乙川, 上品, 一在州東所山, 一在州南石掘里, 皆下品, 一在州東羔峴, 陶器所三, 一在州南草峴, 中品, 一在州東草伐里, 一在州西梨串, 皆下品.”

² 牛山里 지역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鄭良謨, 「朝鮮時代 磁器」, 『東洋陶磁』 28(東洋陶磁學會, 1998-99), p. 68; 姜敬淑,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京畿道博物館, 2001), p. 57; 尹龍

用銘을 비롯한 ‘王’, ‘司’, ‘仁’, ‘申’, ‘丙’, ‘殿’ 및 ‘二’, ‘三’, ‘五’ 등의 숫자명문, 그리고 ‘貴’, ‘專’, ‘天·地·玄·黃’, ‘見樣’ 등 다양한 명문자료들이 보고되고 있어 분청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비한 조선시대 貢納白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³ 본고에서는 발굴조사⁴ 및 지표 수습된 다양한 廣州 牛山里 출토 명문자기들의 분석을 통해 각 명문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廣州 牛山里 지역을 세 개의 小 窯址群으로 구분함으로써, 수취체제의 변화에 따라 명문의 종류와 시문방법상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조선의 자기 공납제도 아래 운영되었던 廣州 牛山里 요지군의 성격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조선의 자기 공납제와 백자수취체제의 변화

조선시대 貢納은 보통 貢物과 進上으로 대별되는데,⁵ 각 지방에서 생산된 도자기명은 이러한 공납제도 아래 공물 또는 진상의 형태로 수취되었다. 공납은 토지와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방의 토산물 및 수공업품을 분정하여 중앙각사가 직접 수취하는 제도로,⁶ 공물의 경우 郡縣단위로 분정 상납하되, 중앙각사에서 각기 소정의 물품을 각각 수납하였다.⁷ 공물을 수납하는 중앙관사에는 國用과⁸ 供上을⁹ 함께 담당하는 兼供衙門과 供上만을 전담하는

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15-16世紀를 中心으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京畿道博物館, 2001), p. 14; 金英媛, 「朝鮮靑磁에 관한 再考察—司囊院 靑磁 대접의 出現을 계기로」, 『美術資料』 第48號(國立中央博物館, 1991), pp. 17-18; _____,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學研文化社, 1995), pp. 73-74; _____,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226-228; 田勝昌,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제18호(미술사연구회, 2004), p. 8; 權素玄, 「朝鮮時代 象嵌白磁의 編年 研究」, 『美術史學研究』 第240號(韓國美術史學會, 2003), pp. 88-90.

3 최근 강원도 양구 방산 지역에서 출토된 銘文白磁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李鍾玟, 「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 『湖西史學』 50호(湖西史學會, 2008); 박정민,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楊口)지역 요업의 성격」, 『강좌미술사』 32호(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9).

4 牛山里 지역은 3차례의 시·발굴 조사가 있었으며, 총 22개소의 조선시대 가마터 유적이 발견되었다.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1993); 海剛陶磁美術館·天真庵聖域化委員會,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1995);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1999).

5 朴道植,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p. 57.

6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集文堂, 2002), p. 52.

7 中央各司 뿐만 아니라 監營·兵營·水營에서도 각 郡縣으로부터 징수 하였으며, 각 郡縣은 郡縣대로 民戶로부터 징수하였다. 李載燾, 「朝鮮前期의 國家財政과 收取制度」, 『韓國史學』 12(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p.

專供衙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자기의 관사명으로 등장하는 長興庫와 禮賓寺는 國用과 內用을 담당하는 검공아문이었으며, 內資寺, 內瞻寺 등은 內用的 물품을 支供하는 공상아문에 해당하였다.¹⁰

長興庫, 禮賓寺, 內資寺, 內瞻寺 이외에도 도자기에 관사명으로 시문되는 恭安府, 仁寧府, 敬承府, 順承府, 仁順府, 仁壽府, 德寧府 등의 관사는 모두 上王府, 中宮府, 世子府 또는 元子府로,¹¹ 각각 上王殿과 中宮殿, 世子宮, 元子宮의 供上을 전담하고 있었다. 각 殿과 宮에 供上을 담당하는 府나 庫를 세우는 전통은 ‘太祖를 위해 庫를 두고 오로지 供上에 힘쓰게 한 것이 옛 제도를 따른 것’이라는 세종 즉위년(1418)의 기사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¹² 여기서 언급된 옛 제도는 고려시대 妃主를 책봉하면 반드시 殿을 세우고 府를 두어 僚屬을 갖추게 하였으며, 王子들의 경우에도 府를 두고 요속을 갖추게 한 고려의 제도로¹³ 恭安府, 仁寧府, 敬承府, 順承府, 仁順府, 仁壽府, 德寧府 등의 관사들은 바로 상왕전, 중궁전, 세자궁, 원자궁에 內用的 물품을 공급하는 공상아문이었다. 따라서 長興庫와 禮賓寺명이 시문된 그릇은 國用과 內用的 용도로 사용된 기명이며, 內資寺, 內瞻寺를 비롯한 恭安府, 仁寧府, 敬承府, 順承府, 仁順府, 仁壽府, 德寧府 등의 관사명이 시문된 그릇들은 모두 內用的 기명이라 할 수 있다.¹⁴

109-110.

⁸ 鄭道傳은 祭祀와 빈객의 대접, 그리고 사냥이나 喪禮, 葬禮 등의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되는 비용과 함께 흉년에 드는 구휼의 비용 및 뜻밖의 재변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國用으로 규정하고 있다. 鄭道傳, 『三峯集』 第7卷「朝鮮經國典」上 賦典 國用, “國家置豐儲倉. 凡祭祀賓客田役喪荒之用皆於此焉. 出謂之國用.”

⁹ 供上은 왕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뜻하는데, 內用 물품의 支供이기 때문에 결국 供上은 內用이라고 할 수 있다. 宋洙煥, 앞의 책(2002), pp. 35-38.

¹⁰ 國用 일반의 支供과 供上을 함께 담당하는 兼供衙門에는 奉常寺, 司僕寺, 司農寺, 禮賓寺, 繕工監, 司宰監, 供造署, 都染署, 義盈庫, 長興庫, 濟用庫 등이 있었으며, 供上만을 전담하는 專供衙門에는 內資寺, 內瞻寺, 司鑪寺, 司饗院, 司醞署, 司圃署, 司畜署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專供衙門이지만 王室의 私藏庫 성격을 크게 띠는 內需司와 尙衣院 등도 있었다. 李載樂, 『朝鮮前期 經濟構造研究』(승실대학교 출판부, 1999), pp. 127-128.

¹¹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278-296.

¹² 『世宗實錄』 卷1 世宗 卽位年 8月 14日 辛卯條, “上遣河演啓于上王曰, 父王昔爲太祖置一庫, 專辦供上, 此用古制也. 今臣心以爲, 以一國奉養兩殿, 何必置一庫乎. 仍舊令內資·內瞻供上, 正合於義…….”

¹³ 『高麗史』 卷77 志31 百官 諸妃主府【諸王子府】. “凡冊封妃主, 則必立殿置府, 備僚屬, …… 諸王子, 必置府備僚…….”

¹⁴ 이러한 사실은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소장의 <분청사기인화문 ‘內資內用’銘대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內資寺가 內用的 물품을 支供하는 供上衙門이기 때문에 ‘內用’이란 명문이 시문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 분청사기 대접은 內用的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알려진 官司名 분청사기 중에는 상당수의 內用 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大殿과 中宮殿에 소용되는 進上器皿으로 보이는 銘文들도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粉靑沙器-附: 扶安 牛東里窯 出土品』(1984), p. 53.

각 지방에서 생산되어 貢物로 납입되던 도자기명은 태종 17년(1417) 이전, 司饗房에서 받아들여 長興庫에서 각 소처에 봉납하였는데, 內宴과 行幸시 사용된 그릇들이 회수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혹은 파손 되었다.¹⁵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태종 17년(1417) 外貢元數 내에서 각 司별로 그릇을 따로 분정 상납케 하고, 그릇의 출납시에도 해당 각 관사가 직접 관장케 하고 있다.¹⁶ 이와 함께 長興庫 貢案에 있는 납입되는 그릇에 ‘長興庫’라는 관사명을 새기게 하고 나머지 각 司들도 장흥고의 예를 따르게 하고 있는데, 이는 1417년 이후 장흥고를 비롯한 중앙 각사들이各司 貢案에 의거하여¹⁷ 공물로 분정된 도자기들을 각 司별로 공급 받았으며, 그릇의 출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司號名을 시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물 이외에도 토산의 현물을 공납하는 방법에는 進上이 있는데,¹⁸ 진상은 순전히 왕실 소용의 물품을 공급 한다는 점에서 供上과 혼용되기도 하였다.¹⁹ 세종 15년(1433) 기사에서 進上磁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²⁰ 각 道 관찰사와 병마·수군 절도사가 奉進책임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²¹ 태종 13년(1413) 전라도 관찰사로 하여금 歲進토록 한 자기 역시 진상기명으로 생각된다.²² 세종 3년(1421)에는 진상되는 기명이 견치하게 제작되지 않아 기명

15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20日 丙子條, “戶曹, 上器皿除幣事宜, 啓曰, 據長興庫呈, 外貢砂木器, 以司饗房納施行而庫專掌捧納, 內宴及行幸時 分納於司饗房司膳署司饗所, 故未得終始考察, 或匿或破還納之數, 僅至五分之一, 徵於逢受下典, 寔爲積年巨弊 …….”; 이러한 사실은 太宗 元年(1400)의 기사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太宗實錄』卷1 太宗元年 正月 1日 甲戌條, “門下府郎舍上疏. 疏曰, …… 一, 州縣其人, 實是前朝之弊法, 國家因循未革. 其屬各殿司饗房, 掌器皿者, 或失或破, 督令充納, 貧寒外吏, 多貸錢物, 因以破產, 其弊不小 ……”

16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4月 20日 丙子條, “…… 願自今, 庫納砂木器, 外貢元數內, 司饗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瞻寺·恭安·敬承府等, 各司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 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絕巨弊, 皆從之.”

17 貢案에는 各官 貢案, 各道 貢案, 各司 貢案 그리고 戶曹 貢案 등이 있었는데, 여기서各司 貢案은 중앙각사가 공납에 의한 각종 수요품을 지방 군현으로부터 징세하는데 필요한 歲入簿로서의 貢案을 비치한 것을 말한다.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一潮閣, 1984), pp. 129-134.

18 進上의 종류에는 物膳進上, 方物進上, 祭享進上, 藥材進上, 鷹子進上이 있는데, 식료품 위주의 物膳進上に 비하여 方物進上에는 甲冑, 弓, 槍, 大箭, 環刀 등의 軍器와 毛皮 등이 주종을 이루는 名日方物과 行幸과 講武시 소용되는 方物도 포함되어 있었다. 李載樂, 앞의 논문(1991), p. 115.

19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東京: 東洋文庫, 1964), p. 91.

20 『世宗實錄』卷62 世宗 15年 12月 26日 乙亥條, “命右承旨鄭奉曰, 盜進上磁器鈿金仁順府奴小老之罪, 義禁, 府照以盜內府財物當斬 ……”

21 金玉根, 위의 책(1984), p. 20.

22 『太宗實錄』卷26 太宗 13年 7月 6日 癸巳條, “命全羅道都觀察使, 歲進瓷器.”; 太宗 13年(1413) 기사에서도 ‘歲貢이 아닌 歲進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貢物의 형태가 아니라 매년 진상토록 하는 進上器皿으로 보고 있다. 朴敬子, 『貢納用 분청사기의 운송과 銘文—경상도 및 충청·전라도를 중심으로』,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

바닥에 匠人名을 새기도록 하였는데,²³ 이는 진상자기의 품질을 개선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²⁴ 또한 세종 7년(1425) 明의 使臣 尹鳳의 요구로 廣州牧使로 하여금 정세 번조도록 한 大·中·小의 白磁獐本은²⁵ 明에 진헌된다는 점에서 廣州牧使에 의해 進上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⁶

行幸과 講武 및 狩獵시 소용되는 물품들을 각 道의 관찰사와 절제사 및 각 지방의 守令들이 支應하는 것을 方物進上이라 하는데,²⁷ 이러한 물품 중에는 그릇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종 3년(1421) 각 郡縣에서 行幸시 사용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폐단을 시정하고자 工曹로 하여금 사전에 제작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²⁸ 태종 14년(1414) 강원도 橫川 砂器所에 머물렀으며,²⁹ 세종 1년(1419) 太宗과 世宗이 매사냥 후 橫城 沙器所에 머물렀고,³⁰ 세종 8년(1426) 강원도에 갔을 때 沙器所에 머물렀다는 기록을³¹ 통해 볼 때 講武나³² 狩獵, 行幸 시

지-역사에서의 中央과 地方』(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2006), pp. 588-589.

23 『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4月 16日 戊申條, “工曹啓, 凡進上器皿, 不用心堅緻造作, 緣此不久破毀, 今後於器皿底, 書造作匠名, 以憑後考, 其不用心者, 徵其器皿, 從之.”

24 다가와 고조(田川孝三)는 16세기 말-17세기 전반 편찬된 조선시대 邑誌(平壤誌, 昇平誌, 耽羅誌)를 통해 해당 읍의 공물수납관서와 물종 및 수량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戶曹, 禮曹, 工曹 등 六曹와 戶曹 속아문인 濟用監, 司宰監, 司膳寺, 內膳寺, 豐儲倉, 廣興倉, 義盈庫, 長興庫, 吏曹 속아문인 內需司, 禮曹 속아문인 奉常寺, 典醫監, 惠民署, 校書館, 觀象監, 兵曹 속아문인 軍器寺, 司僕寺, 工曹 속아문인 尙衣院, 掌苑署 등 중앙의 여러 官司 뿐만 아니라 지방의 監營, 兵營과 水營도 포함되어 있다. 世宗 3年(1421) 進上器皿의 경우도 貢納 제도하에 각 地方에서 생산된 器皿들을 進上의 형태로 工曹에 납입하여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앞의 책(1964), pp. 42-47.

25 『世宗實錄』 卷27 世宗 7年 2月 15日 乙卯條, “左副代言金楮問安于使臣, 尹鳳曰造紙文及沙器進獻, 有聖旨. …… 十卓所用, 每卓大中小碗各一, 大中小櫛兒各五及大中小簪本(酒器, 形如蠶鼓, 腹有口, 俗號簪本). 十事可也. ……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簪本十事, 精細繕造以進.”; 이미 世宗 5年(1423)에도 明의 使臣 海壽가 磁器를 청한 바 있다. 『世宗實錄』 卷21 世宗 5年 8月 丙子條, “海壽求磁器, 命許之.”

26 進上은 주로 각 道 관찰사, 병마·수군 절도사를 위시한 지방관이 국왕에 대한 奉上的 예물로서 關內各司(供上各司)에 상납되었다. 金玉根, 앞의 책(1984), p. 15.

27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앞의 책(1964), pp. 136-139.

28 『世宗實錄』 卷11 世宗 3年 4月 2日 甲午條, “先是, 行幸支應器皿, 令郡縣預備, 守令又使民自備輸納. 至是, 上王以爲擾民, 命曰, 必不得已, 令工曹預造, 司饗司僕各受而藏之. 凡行幸, 以驛馬輪而用之.”

29 太宗이 橫川 砂器所에 머물러 따르는 신하와 軍士들에게 5일간의 식량을 주라고 명하였으며, 강원도 도관찰사 李安愚가 말 1필과 매 3연을 바치고, 判原州牧使 李承幹이 사냥개를 바친 것으로 볼 때 강원도 지역으로 行幸 또는 講武나 狩獵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太宗實錄』 卷28 太宗 14年 閏9月 7日 丁未條, “次橫川砂器所, 命給從臣軍士五日糧. 江原道都觀察使李安愚獻馬一匹鷹三連, 判原州牧使李承幹獻田犬.”

30 『世宗實錄』 卷6 世宗 1年 11月 5日 乙巳條, “兩上沿路觀鷹, 晝停于原州北境. 江原道監司成揆·經歷禹敬夫·兵馬節制使玄貴命·經歷李明保等來見, 揜進酒果. 暮, 雷電以雨. 駕次橫城沙器所, 揜又進酒果.”

31 『世宗實錄』 卷31 世宗 8年 2月 15日 己卯條, “江原道觀察使鄭龜晉·都事襄素·橫城縣監吳敬之·驅軍差使員杆城兵馬使丁克勤·提川縣監元郁等迎謁, 夕次于沙器所.”

사용되는 그릇 중에는 상당수의 磁器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³³

세조 12년(1466) 백자 수취체제에는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진상되는 것과 이전에 이미 번조된 백자기물을 제외하고公私간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한 工人까지도 制書有違律에 의거하여 과죄토록 하고 있다.³⁴ 특히 현물로 수취되던 白磁를 공물에서 제외시키고, 백토가 산출되는 곳을 장부에 기록하여 공조와 승정원에 각각 두게 하고 있는데, 制書有違律이 杖 100대에 해당하는 重罪라는 점에서³⁵ 세조 12년(1466)의 조치는 백자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강력한 관리 규제책이었다. 공물과 진상의 형태로 수취되던 백자는 세조 12년(1466) 6월 진상이라는 형태로 일원화 되었으며, 각 지방의 백토산지는 산출지를 기록한 장부를 공조와 승정원에 들으로써 중앙 정부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백자사용과 백토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관리규제 및 백자 수취체제의 변화는 1466년 6월 이후 자연적으로 관영 사기제조장의 출현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⁶

여기서 관요 성립의 근거로 제시되어 왔던³⁷ 세조 13년(1467)의 司饗房에서 司饗院으로 개칭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 사용방은 태조 4년(1395) 완공된 景福宮의 兩殿인 大殿과 中宮殿에 처음으로 각각 배치되었는데,³⁹ 이후 태종 5년(1405) 완공된 昌德宮에서도 양전에 배치되었다.⁴⁰ 태종 6년(1406) 世子殿 司饗房의 환관인 정덕경

32 世宗 31年(1449) 기록에서 講武를 행할 때마다 민간에서 器皿 등 물건을 거두어 모으는 등 폐해가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世宗實錄』 卷123 世宗 31年 3月 6日 丙戌條, “…… 堅基曰, 臣昔爲舍人時, 請置庫于各處宿所, 以藏講武供費之物, 今皆頽壞, 百姓之厭講武者, 專以每行收聚民間器皿等物故也. 如其器皿等物, 預藏于庫, 以供其用, 則民何厭乎 ……”.

33 조선 초부터 明으로부터의 金銀免貢을 위하여 金銀器 사용을 규제하고 있었으며, 代替器皿으로 磁器의 제작을 촉진하고 있었는데, 世宗 15年(1433) 기록을 살펴보면 世宗 스스로가 器皿에는 磁器와 漆器를 쓴다고 말하고 있어 1430년대 이미 王이 쓰는 그릇을 磁器와 漆器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田勝昌,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磁性格의 變化」, 『美術史研究』 제12호(美術史研究會, 1998), pp. 52-55; 『世宗實錄』 卷62 世宗 15年 11月 1日 庚辰條, “…… 上令崇善, 議于議政府六曹曰 …… 予於器皿, 皆用磁漆 ……”.

34 『世祖實錄』 卷39 世祖 12年 6月 7日 丙午條, “工曹啓, 白磁器, 除進上及已前燔造者外, 自今公私, 毋得用之. 違者並工人, 以制書有違律, 科罪. 且勿定貢物, 以防憑公私造之弊. 凡白土產出處, 令所在邑, 禁盜用, 無遺錄簿, 藏于本曹及承政院. 從之.”

35 『大明律直解』 卷3, 吏律 公式 「制書有違」, “凡奉制書有所施行而違者, 杖一百.”

36 田勝昌,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 『美術史研究』 第22號(美術史研究會, 2008), pp. 207-214.

37 金英媛, 앞의 책(1995), p. 54.

38 『世祖實錄』 卷42 世祖 13年 4月 4日 己亥條, “改司饗房爲司饗院. 始置祿官.”

39 『太祖實錄』 卷4 太祖 4年 9月 29日 庚申條, “是月, 大廟及新宮告成. …… 其餘廚房, 燈燭·引者房, 尙衣院, 兩殿 司饗房 ……”.

이 직접 膳羞를 살피지 않아 밀양으로 유배 간 것을 통해 볼 때,⁴¹ 사용방은 대전, 중궁전, 세자전 등 각 殿에 분속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사용방은 태종 5년(1405) 육조의 분직과 속아문을 규정할 때 사선서와 더불어 吏曹에 소속되어 이조 소속 아문인 동시에 대전, 왕비전, 세자전 등 각 殿에 나누어 분속되었던 것이다.⁴³

그러나 『東國輿地勝覽』의 기록된 사용원의 위치를 살펴보면 조선 초의 기록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복궁의 경우 月華門 밖에 있는 승정원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창덕궁의 경우에도 승정원 동쪽에, 그리고 창경궁에는 明政殿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⁴⁴ 대전, 중궁전, 세자궁에 분속되어 있던 사용방은 15세기 어느 시점에 사용원 하나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이 新增條가 아님을 감안할 때 적어도 대전, 중궁전, 세자궁에 분속된 사용방은 1467년 사용원으로 개칭됨과 동시에 하나로 통합되면서 직무와 역할이 좀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466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관제개혁의 일환으로 1467년 4월 마지막으로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되면서 대전, 중궁전, 세자전에 분속되었던 사용방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원으로 개편하였던 것이다.⁴⁵ 따라서, 1466년 6월 이후, 백자가 공물에서 제외되고, 백자와 백토산지에 대한 국가의 관리규제가 강화되면서, 백자의 수취형태는 進上으로 일원화되었으며, 1467년 4월 대전·중궁전·세자전에 각각 분속되어 있던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통합·개칭됨으로써, 1466년 6월에서 1467년 4월 사이에는 적어도 司饗院의 沙器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0 『太宗實錄』卷11 太宗 5年 10月 19日 辛巳條, “離宮告成. …… 其餘兩殿水刺間, 司饗房及湯子洗手間等 ……”.

41 『太宗實錄』卷11 太宗 6年 4月 戊子條, “杖宦者, 鄭德瓊, 六十, 流之, 密陽. 德瓊, 監世子殿司饗房, 不親省膳羞, 命下巡禁司, 懲其不恪而黜之.”

42 太宗 1년(1401)의 기사에도 각 殿에 司饗房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太宗實錄』卷1 太宗 1年 1月 14日 甲戌條, “…… 州縣其人, …… 其屬各殿司饗房, 掌器皿者, 或失或破, 督令充納, 貧寒外吏, 多貸錢物, 因以破產, 其弊不小 ……”.

43 茶山 丁若鏞이 쓴 『經世遺表』를 살펴보면, “『周禮』의 內饗·外饗·膳夫·庖人이 모두 天官(吏曹) 총재에 딸리게 했으니, 이것 또한 宮과 府를 일체로 한다는 뜻이다. 『經國大典』에도 司饗院이 또한 吏曹에 딸려 있으므로 지금 그대로 따랐다”라고 쓰여 있어 御膳과 供饋를 담당하는 司饗院이 天官인 吏曹에 속한 이유도 宮과 府를 일체한다는 『周禮』의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丁若鏞 著, 丁海廉 譯, 『譯註 經世遺表1』(現代實學史, 2004), p. 34.

44 『新增東國輿地勝覽』卷2 京都 下, “司饗院, 在承政院南. 一在昌德宮承政院東, 一在昌慶宮明政殿北. 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 正·僉正·判官·主簿各一人, 直長一人, 奉事·參奉各三人, 又有提舉提檢凡四人, 皆以前資帶.”

45 『世祖實錄』卷38 世祖 12年 1月 15日 戊午條, “以申叔舟爲議政府領議政, 鄭麟趾河東君, 鄭顯祖儀賓府儀賓, …… 時, 更定官制, 議政府, 改領議政府事爲領議政 …….”; 宋洙煥은 世祖 12年(1466)에 시행된 대대적인 관제개혁의 단행을 시작으로 世祖 13年(1467)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면서 비로소 조선왕조 관제의 완비와 함께 공상아문의 정비가 이루어져 공상제도가 정착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宋洙煥, 앞의 책(2002), p. 65.

Ⅲ. 廣州牛山里 출토 명문자기의 종류와 성격

廣州牛山里 지역 22개의 가마터 유적 가운데 명문자기들이 확인되는 곳은 天真庵 계곡 안쪽에 위치한 우산리 2호 요지와 박석거리에 위치한 우산리 1호 요지, 그리고 강동고교 수련원이 인접해 있는 冠山 아래 우산리 17호 요지와 鷺子峰 끝자락에 위치한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관요 설치 이후 운영된 우산리 9호 요지에서도 銘文片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백자, 조선청자, 그리고 초벌 편이 대부분이다(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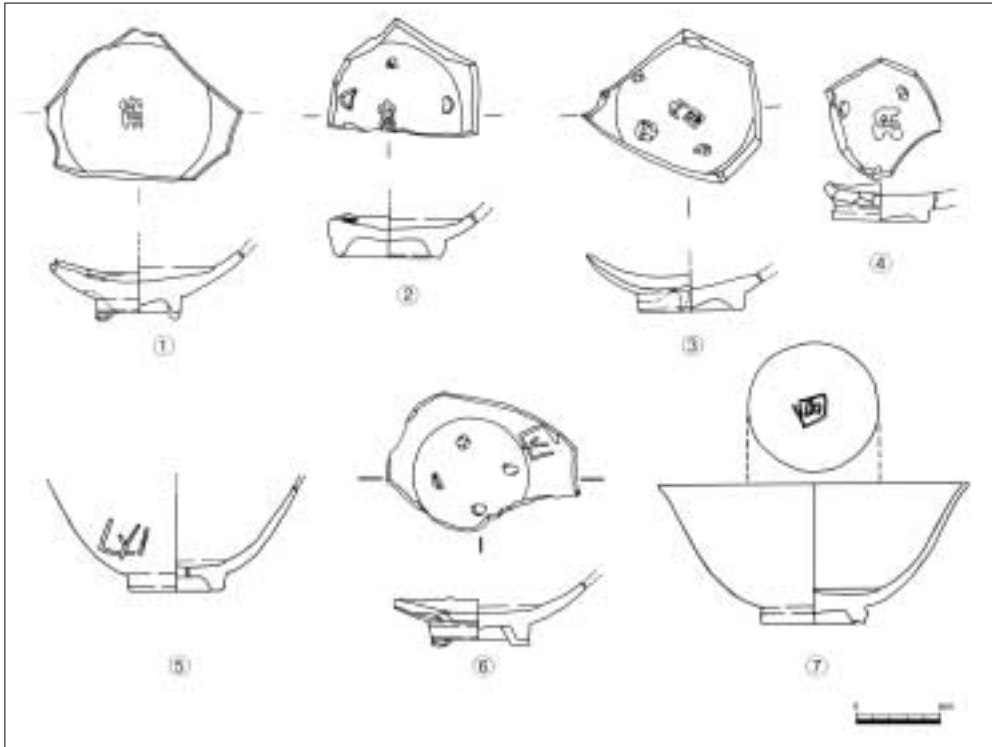
1. 官司名 및 所用處名

1) '內用', '用', '內銘' 백자

'內用' 또는 '用'字 銘文이 시문된 백자는 廣州 우산리 2호 요지에서만 확인되며, '內'銘 백자는 우산리 1호와 4호 요지에서 각각 출토되었다(도 1). 모두 포개구운 조질의 鉢, 標匙, 種子 등의 반상기명으로 '內用'과 '用'字 명문을 내지면 바닥에 印刻하였으며, '內'字 명문은 기물의 외면과 내저면에 각각 음각하였다(도면 1). 도장을 찍어 명문을 시문하는 방법은 고려 후기 干支銘 청자에서 사용된 바 있는데,⁴⁶ 이러한 인각 기법은 元代 銘款制度의 영향을 받



도 1 廣州牛山里 窯址群의 分布와 銘文磁器의 出土樣相



도면 1 廣州牛山里出土 '丙用', '用', '丙'銘 白磁

은 것으로 조선 초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丙用은 國用과 대응되는 개념으로⁴⁸ 國用이 국가의 소용을 의미한다면, 丙用은 왕실의 소용을 가리키는데, 供上이 丙用 물품의 支供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供上은 丙用이라 하겠다.⁴⁹ 供上은 王의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⁵⁰ 이외

⁴⁶ 대몽항쟁 이후 공급되는 도자의 질이 쇠퇴하거나 私用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干支를 새긴 것으로 강진 사당리 요지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高裕燮 著, 秦弘燮 譯, 『高麗靑瓷』(三省美術文化財團, 1977), p. 91; 尹龍二, 「고려후기 干支銘 象嵌靑瓷의 제작시기에 관한 연구」, 『講座 美術史』 第22號(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4), p. 162.

⁴⁷ 『高麗史』 卷84 志38 刑法 職制, “恭愍王八年七月, …… 又於文字, 不宜操筆各署, 刻木作署, 凡於文字, 以刻署着之, 効元朝法也 ……”.

⁴⁸ 李章雨, 『朝鮮初期 田稅制度와 國家財政』(一潮閣, 1998), p. 13.

⁴⁹ 宋洙煥, 앞의 책(2002), pp. 35-38; 高麗時代 義成庫, 德泉庫, 丙藏庫, 保和庫, 義順庫의 역할이 '丙用'을 供上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供上은 명백히 '丙用'의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鄭道傳, 『三峯集』 第7卷, 朝鮮經國典 下, 工典, 倉庫, “曰義成. 曰德泉. 曰丙藏. 曰保和. 曰義順等五庫. 所以供丙用也.”

⁵⁰ 鄭道傳은 '供上'을 王의 일상생활에 소용되는 제반물자에 대한 供辦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궁궐 내

에도 조상의 魂殿과⁵¹ 殯殿⁵² 및 大小祭享과⁵³ 各陵,⁵⁴ 그리고 謁내 각 殿과⁵⁵ 宮⁵⁶ 등에 소용되는 제반의 물자에 대한 공판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 공상의 대상과 범위는 궁궐 내 소용되는 각종 물품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內用 磁器의 감조와 수취 업무는 司饗이라 부르는 愛馬가 담당하였는데,⁵⁷ 愛馬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 숙위와 근·시위를 담당하는 부대 단위 및 그 구성원인 문무 하급 관리층에 대한 충칭으로 문헌기록 속에서 빈번하게 成衆官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⁵⁸ 숙위 또는 근·시위 목적으로 침설된 司樞, 司衣, 司幕, 司彝, 司饗 등의 愛馬는 본래 宮官 계통으로 吏曹의 관할 아래에 있었으며,⁵⁹ 이들 업무가 內侍, 茶房과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즉 元 간섭기 이후 군사조직이 더욱 虛疎化되고, 정치적 변란과 왜구와 흉년적 등의 외침으로 고려 왕실에 대한 숙위가 취약해짐에 따라 무인적인 성격을 부여하여 宮官으로서의 고유 업무 이외에 숙위를 겸하게 하였고,⁶¹ 조선 초까지 이들 근·시위 부대를 존속시킨 것으로 보인다.⁶²

에는 王과 王妃 뿐만 아니라 世子, 大君 및 公主와 翁主, 上王, 大慈大悲 등 王室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供辦까지 포함되면서 '供上'의 의미가 확대되어 王室 소용의 물품에 대한 공판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鄭道傳, 『三峯集』 第7卷 「朝鮮經國典」 上 賦典 上供, “飲膳衣服, 所以供王之奉養也, 匪頒, 所以供王之賜與也, 珍寶, 所以供王之玩好也, 是數者, 今皆謂之上供.”

51 『世宗實錄』 卷15 世宗 4年 3月 8日 乙丑條, “以廣孝殿供上不潔 …….”; 『端宗實錄』 卷14 端宗 3年 5月 9日 癸丑條, “…… 除文昭殿供上, 大小祭享及中朝使臣·隣國客人支持外 …….”

52 『世宗實錄』 卷18 世宗 4年 10月 9日 癸巳條, “…… 副丞洪敘疇闕進殯殿供上物膳 …….”

53 『太宗實錄』 卷3 太宗 2年 4月 24日 丙子條, “…… 願祭享供上, 朝廷使臣宴享外 …….”; 『世宗實錄』 卷123 世宗 31年 2月 13日 甲子條, “…… 大小祭享及各殿各宮供上隣國客人支持外, 中外用酒一禁 …….”

54 『文宗實錄』 卷3 卽位年 8月 1日 壬申條, “…… 英陵供上, 及使臣慰宴所需 …….”

55 『太宗實錄』 卷5 太宗 3年 4月 19日 乙丑條, “命除生肉膳, …… 太上殿, 上王殿供上外 …….”

56 『世宗實錄』 卷60 世宗 15年 6月 15日 丙申條, “命停文昭殿外各殿各宮供上酒.”

57 金英媛, 앞의 책(1995), pp. 73-74;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1年 12月 壬寅條, “…… 司饗每年, 遣人於各道, 監造內用磁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百分之一, 餘皆私之, 弊莫甚焉. 又有羽箭箭竹等差遺, 擾民非一, 願自今, 各司愛馬, 差遺外方者, 一切禁之, 凡係此等事, 皆令呈于都堂, 都堂下觀察使, 觀察使, 分布所在州縣, 據案直納, 則庶便於民 …….”

58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 第9·10合輯(東國大學校史學會, 1966), p. 26; 시라토리 쿠라기치(白鳥庫吉), 「高麗史에 보이는 蒙古語의 一解釋」, 『東洋學報』 第18卷 第2號(東京: 東洋協會學術調査部, 1929), p. 6. 시라토리 쿠라기치(白鳥庫吉)는 '愛馬'라는 명칭을 蒙古語인 部隊, 組合, 團體, 州郡을 가리키는 'aimaq'에서 유래한 對音으로 部隊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59 尹薰杓,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해안, 2000), p. 197; 『高麗史』 卷75, 選舉志 3, 鈐注, 成衆官, 恭讓王 3年 4月, 中冊 p. 651, “…… 吏曹又啓, 內侍茶房司樞司衣司彝等成衆阿幕, 備宿衛近侍之任 …….”

60 尹薰杓, 위의 책(2000), p. 151. 內侍, 茶房 등은 초기에 文官들이 임명되는 宮官이었으나, 王의 측근에 있었던 관계로 禁職으로 여겨져 무인정권 이후 武官들이 입속 하였다.

61 尹薰杓, 위의 책(2000), pp. 151-152.

司饗이 과거 尙食이며, 지금의 司膳이며 이들을 六局에 병합하여야 한다는 기록에서⁶³ 알 수 있듯이 고려 말 숙위와 시위를 담당하는 宮官계통의 司饗 부대는 內用자기의 감소와 수취업무 담당함으로써 司膳署(尙食局)의 고유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廣州 牛山里 1호에서 출토된 '丙'銘 백자 발편(도면 1-⑦)은 내저 중앙에 '內用'銘 백자의 명문처럼 도장을 찍은 듯 方形의 음각 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한 후, 그 안에 '丙'字 명문을 시문하고 있어 '丙'銘 백자 역시 '內用', '用'銘 백자와 같이 內用을 의미하는 명문으로 보인다.⁶⁴ '內用', '用', '丙' 등의 명문이 시문된 백자들은 內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供上의 대상과 범위를 통해 볼 때, 단지 왕실 소용만을 의미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司號名은 알 수 없지만, 궁궐 내 각 殿과 宮 및 供上을 담당하는 중앙 각사 등에 소용되는 기물들로 1417년 이전 제작되어 궁궐 내 납입되는 貢納白磁들이라 하겠다.⁶⁵

2) '司'銘 백자

'司'銘 백자는 '內用'銘 백자처럼 내저면 바닥에 도안화된 도장을 찍어 印刻하거나 흑상 감하였는데, 廣州 우산리 4호와 우산리 17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다. 저경보다 넓은 내저원각을 가지고 있으며, 곡선저 벌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외반하는 접시류가 대부분으로 4-5개의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 구웠다(도면 2). '司'字의 의미는 司膳署이거나 혹은 御膳과 供饋를 담당하는 司饗房을 의미하는 것으로,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司饗'이란 명문을 시문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朝鮮靑磁 '司饗'銘대접>(도 2)과 굽 안바닥에 '饗'字 명문을 음각한 <분청사기 '饗'銘접시편>(도 3)과는⁶⁶ 명문의 시문방법과 명문의 위치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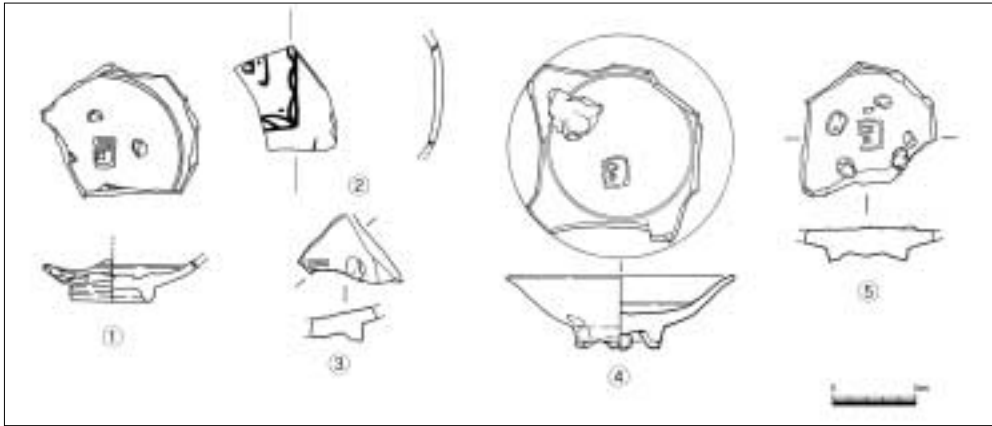
⁶² 조선 초 군제개편으로 인하여 司楯·司衣·司幕·司彝가 근·시위부대인 別侍衛와 忠順扈衛司로 통합되어 결국 兵曹로 흡수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윤정, 「高麗 末·朝鮮 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韓國美術史學會, 2008), pp. 52-53.

⁶³ 『高麗史』 卷118 列傳31 諸臣 趙浚, “司幕, 古之尙舍, 而今之司設也, 司饗, 古之尙食, 而今之司膳也, 今則司設, 食其祿而廢其職, 司幕, 勤其事而不食祿, 司饗以下之職, 亦然, 願以司幕·司饗等愛馬, 併於六局, 以復先王之舊, 以革近代之弊, 則名實相稱而職事立矣.”

⁶⁴ 예를 들어 '內膳米穀'에서 '丙'字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王室인데, 구체적인 官司名이 시문되지 않고 '丙'字만 시문된 廣州 牛山里 出土 '丙'銘 白磁들도 '內用'銘 백자들처럼 內用을 의미하는 명문으로 보인다. 宋洙煥, 앞의 책(2002), p. 39.

⁶⁵ '內用'銘 백자에 시문된 '內用'이란 印刻銘文이 1417년 이전 제작된 궁궐 내 납입되는 貢納白磁에 시문된 명문으로 '內用'銘 백자가 단순히 왕실소용의 기명만이 아니라 供上을 담당하는 중앙 각사 등에 소용되는 기명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궁궐터와 조선의 왕실 사찰인 檜巖寺址 이외에도 淸州 龍岩 龍亭洞 遺蹟과 龍仁 寶亭里 소실遺蹟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⁶⁶ <분청사기 '饗'銘접시편>은 서울 신청사 건립 부지 내 건물지 5호에서 출토되었다. 한강문화재연구원, 「서울시



도면 2 廣州 牛山里 出土 ‘司’銘 白磁



도 2 <朝鮮靑磁 ‘司’銘대접>, 높이 7.9cm, 구경 17cm, 저경 6.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3 서울 신청사 건립 부지 내 건물지 5호 출토 <분청사기 ‘司’銘접시편>, 한강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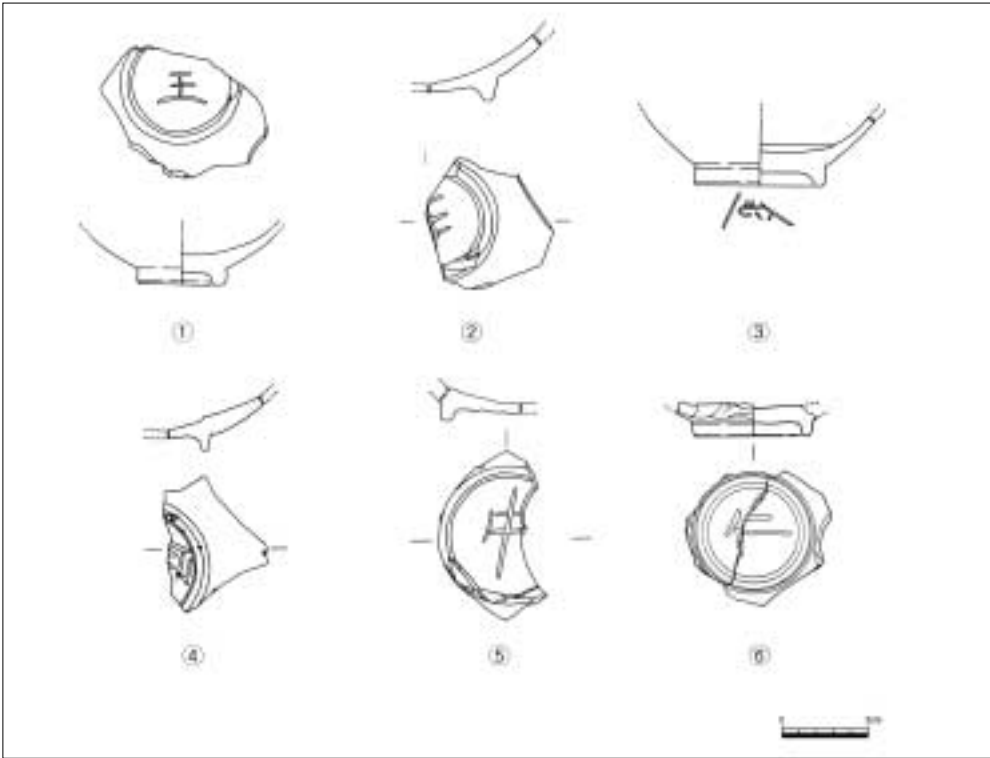


도 4 충남 공주 중흥리 출토 <분청사기인화문 ‘司’銘접시편>, 잔존길이 16.5cm, 충북대학교 소장

‘司膳’銘으로 보이는 충남 중흥리 출토 <분청사기인화문 ‘司’銘접시편>(도 4)과는 친연성을 가지고 있어 사선서에 납입되는 ‘司膳’銘 백자로 생각된다.⁶⁷

신청사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자료집(2009), pp. 26-27.

⁶⁷ ‘司’字 명문이 印刻된 白磁는 京畿道 廣州 木峴里 1호 窯址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國立中央博物館·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窯址地表調査報告書(解說篇)』(2000), p. 144.



도면 3 廣州 牛山里 出土 ‘王’, ‘殿’, ‘中’, ‘仁’銘 磁器

3) ‘王’, ‘殿’銘 자기

‘王’字 명문이 시문된 자기는 초벌편 또는 백자로 廣州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다.⁶⁸ 기종은 발, 접시 등으로 직립한 굽을 가지고 있으며,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王’字 명문을 시문하였다(도면 3-①, ②). 王은 글자 그대로 人君의 君主를 가리키는 글자로 세종 24년(1442) 진상하는 화문석 무늬가 ‘王’字와 같다는 이유로 고치게 한 사례를⁶⁹ 통해 볼 때 ‘王’字라는 명문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임금과 관련된 명문임을 알 수 있다. 포개구운 ‘內用’, ‘內’, ‘司’銘 백자들에 비하여 비교적 양질로 굽의 깎음새도 예리한 수직굽을 이루고 있다. 관사명이 본격적으로 시문되는 1417년 이후 임금이 계신 大殿 또는 기물을 관장하는 大殿의 司饗

⁶⁸ 鐘路區 司諫洞에서도 출토된 ‘王’字 명문이 시문된 <조선청자 ‘王’명저부편>이 발견된 바 있다. 상명대학교 박물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2007), p. 30.

⁶⁹ 『世宗實錄』 卷95 世宗 24年 1月 7日 己巳條, “傳旨戶曹, 各道所進席紋似王字, 自今其改之.”

房을 소용처로 하는 진상 기명으로 보인다.⁷⁰

우산리 4호 요지에서 출토된 ‘殿銘’ 자기는 조선청자 접시편과 초벌편으로 포개 굽지 않고 한 개의 기물을 개별 번조하였다(도면 3-③, ④). 구체적인 殿閣名이 명시되지 않은 채 ‘殿’字 명문만 시문된 경우, 수많은 殿閣들 가운데 어느 전각을 궁극적으로 지칭하는지 분명치 않은데, ‘殿’字는 지방의 관아에 모셔진 殿牌를 통해 더욱 확실한 ‘殿’字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 관아의客舍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殿牌의 감[龕]을 모셔두고, 지방의 수령이 보통 초하루나 보름, 또는 나라에 국상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殿牌에 절하는 向闕望拜의 의식을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임금을 가까이 모신 듯이 하여 선정을 베풀 것을 다짐하였다.⁷¹ 특히 외국 사신들이 머무는 중요한 客舍들인 평양의 大同館이나 송도의 太平館, 한양의 太平館, 慕華館 등에는 主舍에 殿牌와 闕牌의 감[龕]을 모셔두었다. 여기서 殿牌는 바로 조선의 임금을 뜻하며, 闕牌는 중국의 天子를 상징하고 있어⁷² ‘殿’字의 의미는 바로 임금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³ ‘殿’字는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殿下의 간칭으로 생각되며, ‘王’銘 자기와 함께 임금이 계신 大殿 또는 도자기명의 출납을 관장하는 大殿 司饗房에 소용되는 기물로 보인다.

4) ‘申’銘 자기

廣州 우산리 4호에서 출토된 ‘申’銘 자기는 굽바닥 한가운데 음각으로 ‘申’字 명문을 시문한 저부편이다(도면 3-⑤, 표 1). ‘申’字는 먼저 ‘丙用’ 또는 ‘丙’字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포개 구운 조질의 ‘丙用’, ‘丙’銘 백자와는 명문의 시문방법과 명문의 위치 및 품질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직의 굽을 가지고 있으며, 굽의 안바닥에 음각으로 명문을 시문하였다는 점에서 우산리 4호에서 함께 출토된 ‘王’ 또는 ‘殿’銘 자기들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高麗美術館 소장 〈白磁 ‘申’銘鉢〉(도 5)에서도 우산리 출토 ‘申’銘 자기와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高麗美術館 소장 〈白磁 ‘申’銘鉢〉은 구연이 외반하는 匣燻한 양질의 백자

⁷⁰ 世宗 7년(1425)에는 大殿과 中宮殿에 물품을 바치는 것을 進上이라 하고, 나머지 각 殿에 물품을 바치는 것을 供上으로 구분하고 있어, 세종 7년(1425) 이후 도자기에도 王과 王妃가 계신 大殿과 中宮殿 소용의 器皿에는 王과 王妃와 관련된 銘文이 시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卷27 世宗 7年 2月 21日 辛酉條, “禮曹啓, 今後京外官一應奉進之物, 於大殿, 恭妃殿稱進上, 其餘各殿稱供上. 從之.”

⁷¹ 주남철, 『한국건축사』(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p. 280.

⁷²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 202.

⁷³ 이 밖에도 왕이 친히 참석한 가운데 보는 과거 시험을 ‘殿試’라고 부르는 데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있다.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集文堂, 2000), p. 131.



도 5 <白磁 '申'銘鉢>, 높이 11.5cm, 구경 21.5cm, 高麗美術館 소장

발로 '申'銘 자기처럼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申'字 명문을 시문한 후, 굽바닥까지 전면 시유하였다.⁷⁴ 廣州 우산리 출토 '申'銘자기는 기물의 깎음새와 품질, 명문의 시문방법 및 명문의 위치 등에 있어서 高麗美術館 소장 <白磁 '申'銘鉢>과 우산리 출토 <'王' 및 '殿'銘 자기>(도면 3) 등과 유사하기 때문에 1417년 이후 제작되어 王에 상응하는 所處인 中宮殿 또는 中宮殿 司饗房 등에 납입되는 기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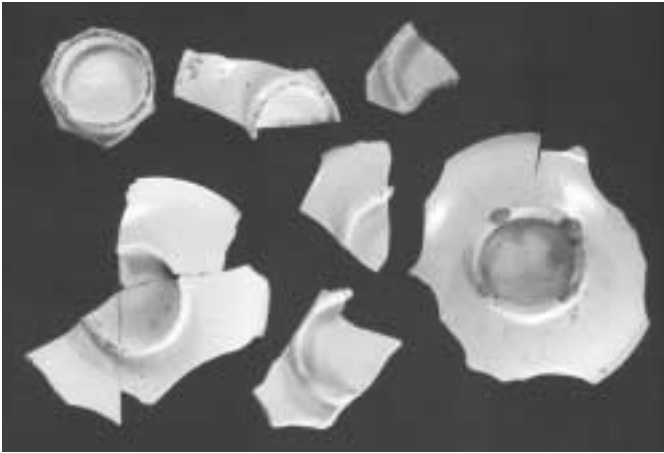
5) '仁'銘 백자

'仁'銘 백자는 廣州 우산리 4호와⁷⁵ 17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仁'字 명문을 시문하였다. 우산리 17호 요지에서 출토된 백자 '仁'銘 저부편(도면 3-⑥)은 포개어서 번조한 조질의 백자가 아니라 한 개의 기물을 개별적으로 번조한 것으로⁷⁶ 정종 妃인 定安王后를 위한 중궁부인 仁寧府(1400-1421)이거나 또는 仁壽府(1400-1464)를 소용처로 하는 官司名 백자로 보인다.

⁷⁴ 財団法人高麗美術館, 『高麗美術館藏品圖錄』(京都, 2003), p. 172.

⁷⁵ 牛山里 4號 窯址에서 出土된 '仁'銘 자기는 초벌 접시편으로 굽의 안 바닥 한 가운데 굽고 깊게 힘찬 필치로 '仁'字 명문을 음각하였는데, 수직의 굽을 가지고 있으며, 깎음새가 정교한 편이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白磁陶窯址』(1986), p. 12, 49.

⁷⁶ 牛山里 17호 조사 당시에 <白磁 '仁'銘저부편>은 갑발 뚜껑의 상단에 부착된 채 출토되었는데, 조사 후 정리 과정에서 분리되면서 굽의 외저 중앙부에 시문된 '仁'字 명문이 드러나게 되었다. 海剛陶磁美術館, 앞의 보고서(1999), pp. 10-11.



도6 <우산리 9호 출토 '天·地·
 玄·黃'명 백자편>,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6) '天·地·玄·黃'銘 백자

廣州 우산리에서 출토된 '天·地·玄·黃'銘 백자들은 모두 발굴 조사된 우산리 9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다. 발과 접시 등의 반상기명으로 감변하거나 한 개의 기물을 단독으로 변조하였다. 우산리 9호에서 출토된 '天·地·玄·黃'의 명문백자는 초벌 후 굽바닥까지 유약을 전면 시유한 후, 굽의 안바닥에 마치 유약을 긁어내듯 음각으로 시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도6) '天·地·玄·黃'이란 명문은 千字文의 순서배열을 응용한 字號로 공사분급과⁷⁷ 濟用監이나⁷⁸ 軍資監 등 중앙각사의 倉庫名⁷⁹ 및 지방 官衙의 倉庫名에서⁸⁰ 쉽게 찾아 볼 수 있

77 『太祖實錄』卷9 太祖 5年 1月 9日 戊辰條, “徵慶尙全羅江原道及西北面安州以南, 東北面咸州以南民丁十一萬八千七十有奇, 始築都城. 既度城基, 分定字號, 始自白岳之東, 起天字, 終于白岳之西, 止甲字, 并西山石嶺, 得地凡五萬九千五百尺. 每六百尺爲一字號, 凡九十七字. 每一字分六號, 每二字置監役判事副判事各一員, 使副使判官(中)十二員. 計各道州郡民戶多少, 自天字止日字東北面, 月字止寒字江原道, 來字止珍字慶尙道, 李字止龍字全羅道, 師字止甲字西北面. 督役者不分日夜, 上以寒甚, 禁夜役.”

78 尹龍二, 「粉靑瓷의 消滅과 白瓷의 發達」, 『韓國陶瓷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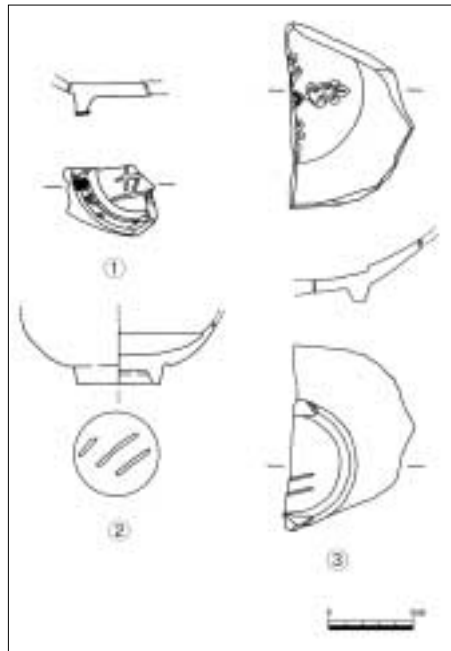
79 『承政院日記』234冊 顯宗 14年 6月 25日 癸亥條, “戶曹啓曰, 軍資監天字庫遺在, 庚戌太六百二石零, 移置張字庫, ……”.

80 洪敬謨 編, 『重訂南漢志』卷5 中篇 倉庫, “營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二十四字庫, 二百一間. ……舊南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七字庫, 八十一間. ……新南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七字庫, 八十一間. ……新豐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七字庫, 八十一間. ……別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六字庫, 八十七間. ……東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十五字庫, 一百十四間. ……新北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十六字庫, 一百四十一間. ……舊北倉. 天·地·玄·黃·字·宙·洪·荒·日·月·盈·昃·辰·宿·列·張·寒·來·暑·往·秋·收·冬·藏九字庫, 一百十七間.”; 『輿地圖書』上卷 京畿道 果川 倉庫, “天字庫·地字庫·

다. 이 밖에도 明代 王宗沐 『江西大志』에는 도자제작과 관련하여 ‘天·地·玄·黃’의 자리번호대로 차례로 앉힌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어,⁸¹ 字號의 사용이 보편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廣州 牛山里 9호 요지에서 출토된 ‘天·地·玄·黃’이란 명문은 바로 관요 성립 이후 백자제작과 관련된 字號로 볼 수 있으며,⁸²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일종의 倉庫名으로 췌내 기명을 관장하고 관영시기제조장을 운영하던 司饗院의 倉庫名인 ‘天子庫·地字庫·玄字庫·黃字庫’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숫자명문

廣州 우산리에서 발견되는 숫자명문은 ‘二’, ‘三’, ‘五’ 등의 숫자들로 모두 우산리 4호 요지에서 出土되었는데, 갑변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양질로, 굽 안바닥에 ‘二’, ‘三’, ‘五’ 등의 숫자명문을 음각하였다(도면 4).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숫자이거나, 수납되는 倉庫名 또는 소용처의 명칭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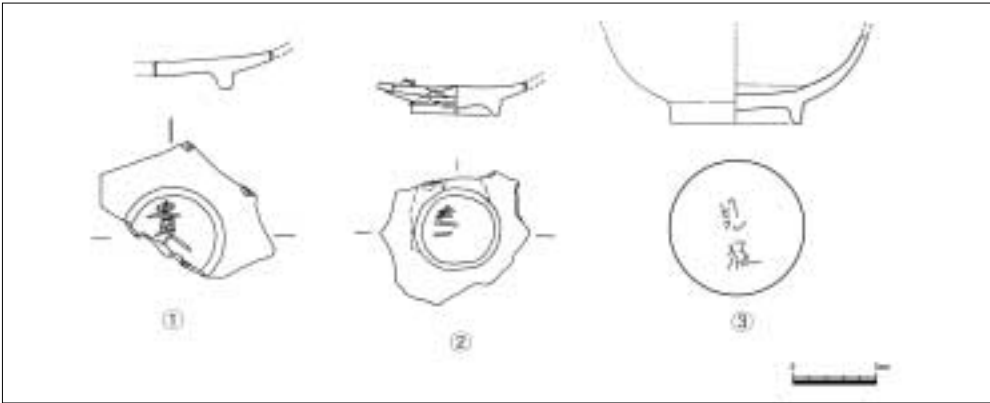
도면 4 廣州 牛山里 出土 數字銘文 磁器

玄字庫·黃字庫·字字庫·宙字庫·洪字庫·荒字庫.”; 『輿地圖書』上卷 京畿道 仁川 倉庫, “只有邑倉, 天字庫六間, 地字庫十間, 玄字庫八間, 黃字庫 六間, 月字庫十間, 盈字庫六間, 官廳庫四間.”

⁸¹ 王宗沐 纂修, 『江西大志』明 嘉靖三十五年刻本 陶書 卷七 回青, pp. 5-7.

“…… 畫青之日, 預懸圖軸, 分立天地玄黃席號序坐, 各坯匠類置各樣土坯卓(桌)上. 次早照號點名入席, 行若魚貫, 列若鴈序. ……”(…… 畫靑로 그리는 날, 미리 圖軸을 걸어두고 ‘天地玄黃’의 자리번호대로 차례로 좌석에 나누어 세운 뒤, 각 坯匠들이 각 樣의 아직 굽지 않은 그릇을 탁자 위에 둔다. 다음 자리번호대로 이름을 불러서 대조한 후 자리에 앉게 하는데, 行과 列이 마치 물고기를 꿰어놓은 것과 같고, 기러기의 순서와 같다…….)

⁸² 도자 제작과 관련된 字號로 明代 王宗沐 『江西大志』에서 좌석의 순서를 매긴 것이나 혹은 白磁를 생산하는 데 있어 天班·地班·玄班·黃班과 같이 4개의 分班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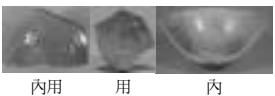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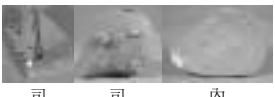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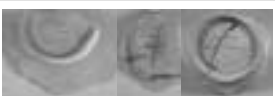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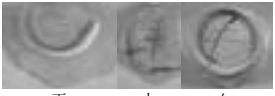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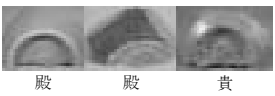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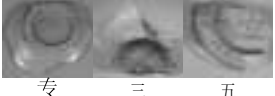














도면 5 廣州 牛山里 出土 其他銘文 白磁

3. 其他銘文

廣州 우산리 9호 요지에서 출토된 '見樣'銘 백자는 유색과 태토 모두 양호한 설백색의 최상품 백자 발로 굽의 접지면에 가는 모래를 받쳐 구웠다(도면 5-③). 굽바닥에는 유려한 필체로 '見樣'이란 명문을 시문 하였는데, '天·地·玄·黃'명 백자처럼 유약을 전면 시유한 후 유면을 긁어내듯 얇고 가는 음각선으로 명문을 시문하였다(도 6). 궐내 소용의 자기는 여염집의 자기와 제도가 다르다는 현종 7년(1666)의 기록을⁸³ 통해 볼 때 見樣은 도자제작을 위한 일종의 見本品으로 도자제작에 있어 규정된 크기와 모양에 따라 기물을 제작하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물의 體樣으로 보인다. 우산리에는 이 밖에도 '貴'字와 '爰'字 명문이 시문된 백자 접시가 각각 牛山里 4호 요지에서 출토되었는데(도면 5-①, ②), 태토빛음을 받쳐 포개구운 조질의 백자 접시이며, 굽 안바닥에 음각으로 '貴'字와 '爰'字를 각각 시문하였다(표 1).

⁸³ 『顯宗修整實錄』卷16 顯宗 7年 8月 9日 丁巳條, “副應教, 金萬均, 副校理 洪萬容, 修撰 尹深 請對言, …… 又曰, 頃者以司饗院所供磁器, 非古時體制, 有改造之命云, 臣恐古者臥薪嘗膽之君, 必不念及於如此之事矣. 上曰, 闕內所用磁器, 與閭閻器皿, 制度不同. 而四五年來, 漸失古體, 混雜無別, 故有還下之事, 實非有意於侈美也 ……”

표 1 廣州牛山里 出土 銘文磁器의 種類와 特徵

| 窯址群 | 年代 | 廣州牛山里 出土 銘文磁器의 種類 | 銘文의 種類와 意味 | | 銘文의 施文方法 | 銘文의 施文位置 | 燔造方法 | 品質 | 主要器種 | | |
|---|---------------------------|--|---|----------|-------------------------|---------------------------|-------------------|------------------------|------|---|---|
| | | | 種子 | 鉢 | | | | | 碟匙 | | |
| I窯址群 1, 2, 3, 4, 5, 17, 18, 19, 20, 22호 | - 1430년대 |  內用 用 內 |  | 內用, 用 | 內用 | 印刻, 施釉 前 陰刻, 黑象嵌 | 器物的 外面, 內底面 | 포개구이 | 粗質 |  |  |
| | |  司 司 內 |  | 內 | 內用 | | | | |  |  |
| | |  司 司 內 |  | 司 | 司膳署 | | | | |  |  |
| II窯址群 4, 5, 6, 7, 17, 20호 | 1430년대 - 官窯設置 以前 |  王 中 仁 |  | 王, 殿 | 大殿 또는 大殿 司饗房 | 施釉 前 陰刻 | 굽 안바닥 | 한 개 器物 個別 燔造 | 良質 |  | |
| | |  殿 殿 貴 |  | 中 | 中宮殿 또는 中宮殿 司饗房 | | | | |  |  |
| | |  專 三 五 |  | 貴, 專 | | | | 한 개 器物 個別 燔造 | 良質 |  |  |
| | |  專 三 五 |  | 數字 | 器物的 數量, 倉庫名, 所用處名 | | | | |  |  |
| III窯址群 8, 9, 10, 11, 12, 13, 14, 15, 16, 21호 | 官窯設置 以後- |  天地玄黃 見樣 |  | 天地 玄黃 | 倉庫名, 器物製作과 관련된 字號 | 施釉 後 陰刻 | 굽 안바닥 | 한 개 器物 個別 燔造, 匣燔 | 良質 |  | |
| | |  天地玄黃 見樣 |  | 見樣 | 見本品, 製作하는 器物的 體樣 | | | | |  |  |

IV. 명문자료를 통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성격

廣州 牛山里 요지군은 명문의 시문방법 및 각 명문이 가지는 의미와 성격을 통해 볼 때 크게 3개의 小 窯址群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요지군은 I요지군(-1430년대), II요지군(1430년대-관요설치 이전), III요지군(관요설치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도8).

1. I期(-14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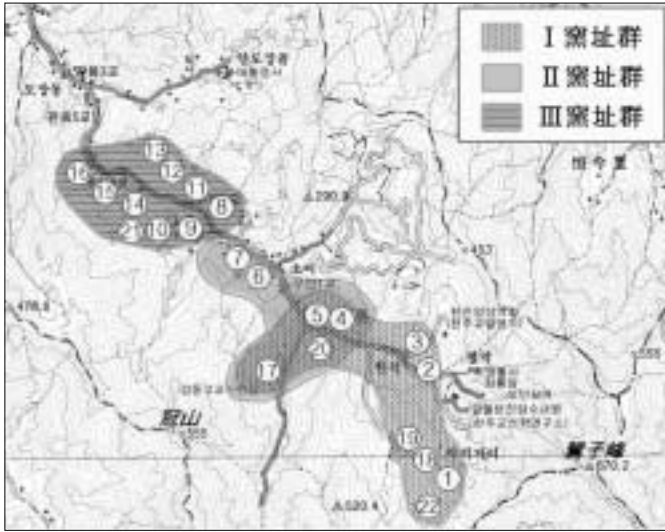
I窯址群은 廣州 牛山里 지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요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으로 천진암 계곡 안쪽의 우산리 2, 3호 요지와 박석거리에 위치한 우산리 1, 18, 19, 22호 요지, 그리고 冠山 아래 위치한 우산리 4, 5, 17, 20호 요지들이다(도8). 구체적인 관사명이 시문되지 않은 '內用' 銘 및 '用' 銘 백자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명문의 시문방법에 있어 고려시대 干支銘 청자의 여운이 남아 있는 인각기법으로 명문을 시문하고 있어 구체적인 司號名이 시문되는 태종 17년(1417) 이전부터 요업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음각한 조질의 '內' 銘 백자들도 기물의 내저 중앙 또는 외면에 명문을 음각하고 있으며, 마치 도장을 찍은 모양처럼 方形의 음각 선문으로 문양대를 구획하는 등 內用 銘文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표 1). '內用', '用', '內' 銘 백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粉靑沙器印花文 '內資內用' 銘대접>(도7)과 비교될 수 있는데, <粉靑沙器印花文 '內資內用' 銘대접>의 경우 內資寺라는 구체적인 관사명이 시문되어 있어 그 소용처를 알 수 있는 반면, '內用', '用', '內' 銘 白磁는 구체적인 소용처를 알 수 없어 태종 17년(1417) 司號名이 시문된 이후 제작된 <粉靑沙器印花文 '內資內用' 銘대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7 <粉靑沙器印花文 '內資內用' 銘대접>, 높이 7cm, 구경 17.5cm, 저경 6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따라서 '內用', '用', '內' 銘 白磁는 소용처는 알 수 없지만, 궁궐 내 각 殿과 宮 및 供上을 담당하는 중앙각사에 납입되던 內用기명으로 1417년 관사명 시문조치 이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司' 銘 백자의 경우에도 '內用' 銘 백자처럼 인각하거나 고려 후기 干支銘 청자 또는 초기 분청사기에서처럼 흑상감하였는데, 굽



도 8 廣州牛山里小窯址群의 分布樣相

안바닥에 명문을 시문한 <朝鮮靑磁 ‘司饗’명대접>(도 2)과 <분청사기 ‘饗’銘접시편>(도 3)과는 명문 시문방법과 시문위치가 다른 반면, 충남 중흥리 요지에서 출토된 <粉靑沙器印花文 ‘司’銘접시편>(도 4)과는 유사하여 사용방보다는 사선서를 지칭하는 일종의 司膳銘 백자로 생각된다. 특히 II요지군과 중첩된 우산리 4호, 17호 요지에서는 ‘司’銘 백자 이외에도 관사명 또는 소용처로 보이는 ‘王’, ‘殿’, ‘仁’, ‘申’ 및 숫자명문과 ‘貴’, ‘專’ 등의 다양한 명문편들이 공반되고 있어 관사명이 시문되는 1417년 이후에도 활발한 요업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우산리 지역은 光武 8年(1904) 上牛山洞과 下牛山洞으로 편재된 이래로,⁸⁴ 1914년 대대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과⁸⁵ 1915년 3월에는 다시 각 面內의 洞·리에 대한 명칭과 관할구역의 합속으로 현재의 牛山里로 정제 되었다.⁸⁶ 따라서, 현재의 牛山里 지역은 박석거리(白石)과 천진암 계곡의 절막동(司幕),⁸⁷ 冠山 아래 牛山洞(牛山里)과 소미 마을, 매내미 마을(우산리 9호, 10호 요지근처)과 도장동이 통합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우산리 즉 蘇山 아래 있는 다수의 요적군이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所山이

⁸⁴ 광주문화원, 『廣州의 地名由來』(2005), p. 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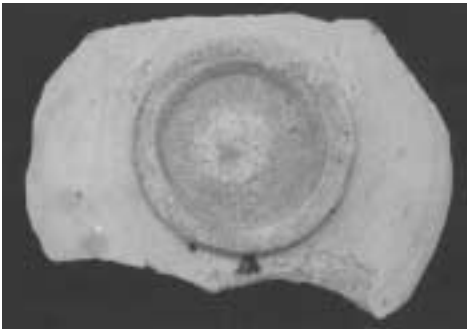
⁸⁵ 1914년 3월에는 廣州 지역 22개소의 洞·리를 통합하여 16개 面단위로 재편성하였다. 朝鮮總督官房總務局, 『朝鮮總督府官報』 號外, 大正 3年(1914) 3月 13日, pp. 1-6.

⁸⁶ 朝鮮總督官房總務局, 『朝鮮總督府官報』 第775號, 大正 4年(1915) 3月 6日, pp. 84-88.

⁸⁷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의 변경과 통폐합을 시행하였는데, 京畿道를 총 2府 20郡으로 편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산리 지역 역시 절막과 박석거리를 현재의 우산리 지역 내에 편입시켰다. 京畿道, 『地名由來集』(1987), p. 2.



도 9 <廣州全圖>(1872年) 세부,
72×102cm,
서울대학교 奎章閣 소장



도 10 양구 방산면 송현리 5호 요지 출토 <白磁 恭安
府 銘楮시편>, 높이 3.5cm, 복원구경 12.5cm,
명지대학교 박물관 소장

라고 밝히고 있는데,⁸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말한 蘇山은 현재의 冠山으로 보이며, 관산 아래 위치한 우산리 17호, 20호 요지가 『世宗實錄』 「地理志」에 所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고종 9년(1872) 제작된 <廣州全圖>(도 9)에서도 鷺子山과 함께 牛山이란 산 이름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어 현재의 冠山 지역이 과거 牛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金正浩의 『大東地誌』와 憲宗 13년(1847) 洪敬謨가 편찬한 『重訂南漢志』에서는 鷺子山을 牛山으로 기록되어 있어,⁸⁹ 적어도 冠山 아래 위치한 우산리 17호, 20호 요지와 鷺子峯의 끝자락에 위치한 우산리 4호, 5호 요지가 운영될 시점에 『世宗實錄』 「地理志」에 所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따

⁸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著 ·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編, 「分院窯跡考」, 『朝鮮民芸論集』(東京: 岩波書店, 2003), p. 200. 「分院窯跡考」는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가 1927년(昭和 2年) 『大調和』 12月號에 기고한 논문이다.

⁸⁹ 金正浩, 『大東地誌』 卷2 廣州府, “鷺子山, 一云牛山在退村.”; 洪敬謨 編, 『重訂南漢志』 卷1 上篇 山川, “鷺子山在退村面一名牛山.”

라서 I요지군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조사기간까지(1424-1432년) 요업활동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양구 방산면 송현리 5호 요지 출토 〈백자 ‘恭安府’銘접시편〉(도 10)을 고려한다면,⁹⁰ 우산리 I요지군은 적어도 1410년대 4사분기에는 포개어서 번조한 조질의 백자 생산이 박석거리와 절막동 지역의 우산리 1, 2, 3, 18, 19, 22호 요지에서 이루어졌으며, 冠山 아래 우산리 4, 5, 17, 20호 요지가 운영될 무렵 『世宗實錄』 「地理志」 하품 자기소인 所山으로 기록되었다고 하겠다.

2. II期(1430년대-官窯設置 이전)

II窯址群은 『世宗實錄』 「地理志」의 조사기간(1424-1432년) 이후 운영되어 조선 관요가 성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된 가마들이 포진해 있는 牛山里 4, 5, 6, 7, 17, 20호 요지들로 갑발을 사용한 양질의 백자생산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 명문자료들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되는 곳이다(표 1). 포개 구웠거나 혹은 한 개의 기물을 개별적으로 번조한 다양한 품질의 ‘王’, ‘殿’, ‘仁’, ‘中’ 및 숫자명문과 ‘貴’, ‘專’ 등의 명문자기들이 수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天·地·玄·黃 등의 명문들이 보이지 않으며, 명문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소용처가 명기된 백자, 조선청자, 초벌편이 흔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大殿이나⁹¹ 大殿 司饗房 또는 中宮殿이나 中宮殿 司饗房을 소용처로 하는 ‘王’, ‘殿’, ‘中’ 등의 명문편들과 仁寧府 또는 仁壽府로 추정되는 ‘仁’銘 백자, 그리고 숫자명문 磁器들은 모두 한 개 기물을 개별적으로 번조한 양질의 자기라면 ‘貴’, ‘專’銘 白磁는 모두 포개구운 조질의 백자로 명문에 따른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명문의 시문방법과 시문된 명문의 위치에 있어서도 ‘王’, ‘殿’, ‘中’, ‘仁’銘 백자는 명문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굽 안바닥 부분에 관사명 또는 소용처명을 음각하고 있는데(표 1), 이러한 명문 시문방법은 관영의 사기제조장이 설치된 이후 운영된 廣州 官窯들에서 발견되는 ‘天·地·玄·黃’과 ‘左·右’, 그리고 ‘左·右’+干支銘으로 이어지는 조선 관요의 명문 시문방법으로 조선 관요 명문 시문방법의 始原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⁹² II요지군의 우산리 4

⁹⁰ 박정민, 「麗末鮮初 楊口 方山가마와 관사명 공납백자」,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방산자기박물관, 2007), pp. 106-112.

⁹¹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寺幕(절막동-현재의 천진암 계곡)이 있는 계곡의 출구에 있는 두 요지에서(현재의 우산리 4, 5호 요지로 보임)에서 大殿(아사카와 다쿠미는 大殿으로 보고 있음)명이 시문된 명문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著 ·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編, 앞의 책(2003), p. 199.

호에서는 구체적인 관사명이 시문되지 않은 '內銘' 백자 등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실제로 I 窯址群과 중첩되게 1417년 이전부터 이미 요업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司' 銘 백자를 비롯하여 '王', '殿', '仁', '中' 등 구체적인 관사명 또는 소용처명이 시문된 자기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숫자명문을 비롯한 양질의 자기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世宗實錄』 「地理志」의 조사기간인 1424-1432년 무렵 下品 자기소인 所山으로 기록된 이후, 왕성한 요업활동을 지속하여 司饗院의 沙器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중앙의 각 관사와 大殿 및 中宮殿 등 궁궐 내 각 殿에 납입되는 백자와 조선청자 등 다양한 종류의 공납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3. III期(官窯設置 이후-)

III 窯址群은 발굴 조사된 廣州 우산리 9호 요지를 중심으로 하여 관요가 설치된 이후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우산리 8, 9, 10, 11, 12, 13, 14, 15, 16, 21호 요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II요지군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관사명 또는 소용처명이 보이고 있지 않으며, '天·地·玄·黃'과 '見樣銘' 등의 명문백자가 출토되고 있다(도 6, 도면 5-③, 표 1). 조선의 백자수취체제는 1466년 6월 백자가 공물에서 제외되면서 진상의 형태로 일원화되었는데, 공조와 승정원에 백토 산출지를 기록한 장부를 두고,公私간의 백자 사용을 규제하면서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후 1467년 4월,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廣州에는 본격적인 관영 자기제조장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에서 생산되어 각 소용처에 공물과 진상의 형태로 납부되던 磁器 貢納의 방식은 공조와 사용원에서 沙器匠과 白土產地에 대한 관리가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司號名이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백자 제작에 있어 규정된 크기와 모양 및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물의 體樣인 '見樣銘' 백자와 사용원의 倉庫名 또는 도자제작과 관련된 字號로 보이는 '天·地·玄·黃' 등의 명문이 출토되고 있어 司饗院의 沙器所 설치 이후 운영된 가마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들 명문은 기물의 사용자가 볼 수 없는 굽 안바닥에 시유된 유약 면을

⁹² 굽 안바닥에 銘文을 施文하는 방법은 器物의 外面이나 內底面 등 쉽게 드러나는 부분에 銘文을 시문하는 방법보다 사용자를 고려한 銘文 施文方法으로 보인다. 銘文이 器物의 外面이나 內底面에 施文되어 있으면 器物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관리자 뿐만 아니라 기물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손쉽게 그 명문을 확인할 수 있으나, 굽 안바닥에 銘文을 시문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器物을 들어 올리거나 器物을 뒤집어 엿지 않으면 굽 안바닥에 쓰여진 銘文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11 1482년 또는 1542년, 〈牛山里 9호窯址 出土 白磁 陰刻 '壬寅'銘誌石〉, 가로 16cm, 세로 8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12 〈牛山里 9호 出土 白磁靑畫 '司果'銘誌石〉, 가로 8.7cm, 세로 4.7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끊어내듯 가는 음각선으로 명문을 시문하였는데, '左·右'와 '左·右'+干支銘으로 이어지면서 조선 관요 명문 시문방법의 전형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산리 9호 요지에서는 〈백자음각 '壬寅'銘지석(1482년 또는 1542년)〉(도 11)과 〈백자청화 '司果'銘지석〉(도 12) 등이 함께 출토되어 관요 설치 이후 16세기까지 요업활동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은 15세기 전반부터 조선의 磁器 貢納制度 아래 進上器皿과 궁궐 내 각 殿과 宮 및 中央各司에 소용되는 內用과 國用の 공납자기를 생산했던 조선시대 운영된 貢納 窯場의 하나였다. 조선의 공납자기는 郡縣단위로 공물과 진상의 형태로 수취되었는데, 공물을 납입하는 중앙각사에는 內用과 國用을 담당하는 겸공아문과 內用을 전담하는 공상이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겸공아문에는 분청사기의 관사명으로 등장하는 長興庫와 禮賓寺가 있었으며, 공상이문에는 內資寺, 內瞻寺를 비롯하여 恭安府, 仁寧府, 敬承府, 順承府, 仁順府, 仁壽府, 德寧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官司名 자기들이 상당수 內用기명임을 알 수 있다. 1417년 이전 司饗房에 납입한 후, 長興庫에서 각 司에 봉납하였는데, 1417년 이후, 官司名을 새겨 각 司별로各司貢案에 의거하여 分定上納케 하였다. 進上의 경우 각 道 관찰사와 牧使 등 지방관이 行幸과 講武시 사용되는 그릇을 공급하거나 사전에 工曹에 의해 필요한 기물을 미리 제작한 후 납입 받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貢物

과 進上으로 수급되던 백자의 수취형태는 1466년 6월 白磁가 貢物에서 제외되고 進上으로 일원화되었으며, 백자사용과 백토 규제가 강화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용원의 사기소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적어도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는 1467년 4월 이전에는 官窯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內用’ 및 ‘用’, ‘內’, ‘司’銘 백자들이 출토되고 있는 廣州 牛山里 I窯址群은 官司名이 시문되는 1417년 이전부터 요업활동이 시작된 곳으로 干支銘 청자에서 보이는 인각기법과 흑상감 및 음각 기법으로 기물의 외면과 내저면에 명문을 시문하였다.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의 견해와 高宗 9年(1872) 제작된 〈廣州全圖〉을 통해 볼 때 『世宗實錄』 「地理志」에 기록된 下品 磁器所인 所山이 현재의 冠山 지역으로 추정되며, 鷲子山을 牛山으로 기록한 金正浩의 『大東地誌』와 洪敬謨의 『重訂南漢志』를 고려하면, 적어도 우산리 4, 5, 17, 20호 요지가 운영될 시기에 『世宗實錄』 「地理志」에 ‘所山’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窯址群은 대략 『世宗實錄』 「地理志」 조사기간의 하한연대인 1430년 무렵까지 요업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廣州 牛山里 II窯址群은 『世宗實錄』 「地理志」 조사기간 이후 1430년부터 官窯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운영된 窯址들로 官司名 또는 所用處名으로 보이는 ‘王’, ‘殿’, ‘中’, ‘仁’과 숫자명문 및 ‘專’, ‘貴’ 등의 다양한 명문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 進上器皿으로 보이는 ‘王’, ‘中’, ‘殿’銘 磁器와 數字銘文 磁器는 비교적 良質인 반면, ‘專’, ‘貴’ 등의 銘文白磁는 粗質로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王’, ‘殿’, ‘中’, ‘仁’, ‘專’, ‘貴’ 등의 銘文은 모두 굽 안 바닥에 陰刻하였는데, 이는 官窯 설치 이후 ‘天地玄黃’, ‘左右’+干支銘으로 이어지는 朝鮮 官窯의 銘文 시문방법의 始原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牛山里 9호 요지를 중심으로 하는 廣州 牛山里 III窯址群은 1466년 6월 백자가 貢物에서 제외되고 1467년 4월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면서 1466년 6월-1467년 4월 사이 司饗院의 沙器所가 설치됨에 따라 구체적인 官司名 대신 ‘天·地·玄·黃’, ‘見樣’ 등의 銘文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명문은 각각 백자 생산과 관련된 명문이거나 혹은 司饗院의 倉庫名이며, 또한 기물의 體樣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영의 사기제조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본 논문은 廣州 牛山里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자기의 분석을 통해 변화된 수취체제 속에서 명문의 종류와 시문방법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밝힘으로써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들 廣州 牛山里 출토 명문자료 이외에도 각 지역에서 출토되는 官司名 白磁와 官司名 분청사기와의 체계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자기 공급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비교연구를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廣州 牛山里(Usan-ri, Gwangju: Usan-ri area in Gwangju City), 『世宗實錄』 「地理志」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Appendix of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銘文白磁(White porcelains with engraved or stamped inscriptions), 貢納制度(Tributary payment system), 朝鮮 官窯 (Royal kilns of the Joseon dynasty)

■ 투고일 2009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0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0년 4월 14일 ■

참고문헌

1. 史料

- 『江西大志』
『經世遺表』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明律直解』
『陶冶圖說』
『磻溪隨錄』
『三峯集』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慵齋叢話』
『佔畢齋集』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重訂南漢志』

2. 單行本 및 報告書

- 경기도박물관, 『경기문화유적지도』 II, 2000.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광주군, 『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廣州市 · 朝鮮官窯博物館, 『文化遺蹟分布地圖-廣州市』, 2005.
高裕燮 著 · 秦弘燮 譯, 『高麗靑瓷』, 三省美術文化財團, 1977.
國立中央博物館 · 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查報告書(圖版篇)』, 1998.
_____, 『京畿道廣州中央官窯 窯址地表調查報告書(解說篇)』, 2000.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研究』, 學研文化社, 1995.
_____,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研究』, 一潮閣, 1984.
-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京: 東洋文庫, 1964.
- 상명대학교 박물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태고종 전통문화진흥관 신축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2007.
- 宋洙煥, 『朝鮮前期 王室財政 研究』, 集文堂, 2002.
-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著, 다카사키 소오지(高崎宗司) 編, 『朝鮮民芸論集』, 東京: 岩波書店, 2003.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 尹薰杓, 『麗末鮮初 軍制改革研究』, 혜안, 2000.
-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 集文堂, 2000.
- 李章雨, 『朝鮮初期 田稅制度와 國家財政』, 一潮閣, 1998.
- 李載讓, 『朝鮮前期 經濟構造研究』,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9.
-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粉靑沙器—附:扶安 牛東里窯 出土品』, 1984.
- _____,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牛山里9號窯址 發掘調査報告』, 1993.
- 財団法人高麗美術館, 『高麗美術館藏品圖錄』, 京都, 2003.
- 丁若鏞 著, 丁海廉 譯, 『譯註 經世遺表 1』, 現代實學史, 2004.
- 鄭良謨·尹龍二·金得豐, 『韓國白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 조선관요박물관·경기도 광주시, 『廣州의 朝鮮陶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_____,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한강문화재단연구원,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자료집」, 2009.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白磁陶窯址』, 1986.
- 海剛陶磁美術館·天眞庵聖域化委員會, 『廣州 牛山里 白磁 窯址』, 1995.
- 海剛陶磁美術館,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II)—17號 白磁窯址 試掘調査報告書』, 1999.

3. 學術論文

- 姜敬淑,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p. 57.
- 權素玄, 「朝鮮時代 象嵌白磁의 編年 研究」, 『美術史學研究』 240, 韓國美術史學會, 2003, pp. 88-90.
- 金英媛, 「朝鮮靑磁에 관한 再考察—司饗院 靑磁 대접의 出現을 계기로」, 『美術資料』 第48號, 國立中央博物館, 1991, pp. 17-18.
- 김윤정, 「高麗 末·朝鮮 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 韓國美術史學會, 2008, pp. 52-53.
-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 第9·10合輯, 東國大學校史學會, 1966,

p. 26.

朴敬子, 「貢納用 분청사기의 운송과 銘文—경상도 및 충청·전라도를 중심으로」, 『제49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역사에서의 中央과 地方』, 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2006, pp. 588-589.

박정민, 「麗末鮮初 楊口 方山가마와 관사명 공납백자」,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 방산자기박물관, 2007, pp. 106-112.

_____, 「명문백자로 본 15세기 양구(楊口)지역 요업의 성격」, 『강좌미술사』 32호,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9, pp. 85-92.

시라토리 쿠라기치(白鳥庫吉), 「高麗史에 보이는 蒙古語의 一解釋」, 『東洋學報』 第18卷 第2號, 東京: 東洋協會學術調查部, 1929, p. 6.

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15-16世紀를 中心으로」,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京畿道博物館, 2001, p. 14.

_____, 「고려후기 干支銘 象嵌靑瓷의 제작시기에 관한 연구」, 『講座 美術史』 第22號,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4, p. 162.

李載燾, 「朝鮮前期의 國家財政과 收取制度」, 『韓國史學』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1, pp. 109-110.

李鍾玟, 「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 『湖西史學』 50호, 湖西史學會, 2008, pp. 379-382.

田勝昌, 「15世紀 粉靑沙器 및 白磁의 需要와 製磁性格의 變化」, 『美術史研究』 제12호, 美術史研究會, 1998, pp. 52-55.

_____, 「조선 관요의 분포와 운영체계 연구」, 『미술사연구』 제18호, 미술사연구회, 2004, p. 8.

_____, 「京畿道 廣州 官窯의 設置時期와 燔造官」, 『美術史研究』 第22號, 美術史研究會, 2008, pp. 207-214.

鄭良謨, 「朝鮮時代 磁器」, 『東洋陶磁』 28, 東洋陶磁學會, 1998-99, p. 68.

4. 學位論文

朴道植, 「朝鮮前期 貢納制 研究」, 경희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국문초록

廣州 牛山里는 『世宗實錄』地理志의 下品 磁器所인 所山으로 기록된 곳으로 다양한 명문자료들이 출토되고 있어 15세기 조선 백자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선시대 자기는 貢納制度 下에 貢物과 進上의 형태로 수취되었는데, 貢物을 받는 中央各司에는 도자기의 官司名으로 등장하는 長興庫와 禮賓寺 및 內資寺와 內瞻寺 등 內用과 國用을 담당하는 兼供衙門과 內用을 전담하는 供上衙門이 포함되어 있었다. 貢物로 납입되는 도자기물은 1417년 이전 司饗房에 납입한 후, 長興庫에서 각 所處로 봉납하였는데, 1417년 이후 구체적인 司號名을 새겨 각 司별로 貢案에 의거하여 分定上納케 하였다. 進上의 경우 각 道 관찰사와 牧使 등 지방관 등이 行幸과 講武 시 사용되는 그릇을 공급하거나, 工曹에 의해 필요한 기물을 사전에 제작하였다.

백자의 수취형태는 1466년 6월 白磁가 貢物에서 제외되고, 백자사용과 백토산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백자수취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적어도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는 1467년 4월 이전에는 官窯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內用' 및 '用', '丙', '司'銘 백자들이 출토되고 있는 廣州 牛山里 I窯址群은 官司名이 시문되는 1417년 이전부터 요업활동을 이루어진 곳으로 干支銘 青磁에서 보이는 印刻技法과 黑象嵌 및 陰刻技法으로 器物의 外面과 內底面에 銘文을 시문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下品 磁器所인 所山이 현재의 冠山 지역으로 추론되므로, I窯址群은 대략 『世宗實錄』「地理志」의 조사기간의 하한인 1430년 무렵까지 요업활동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II窯址群은 1430년부터 官窯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운영된 가마들로 官司名 또는 所用處名으로 보이는 '王', '殿', '中', '仁'과 숫자명문, '专', '貴' 등 다양한 명문자료들이 출토되고 있다. '王', '中', '殿'銘 磁器와 數字銘文 磁器는 비교적 良質인 반면, '专', '貴' 등의 銘文白磁는 粗質로 질적 차이를 보인다. '王', '殿', '中', '仁', '专', '貴' 등은 모두 굽 안바닥에 명문을 陰刻하였는데, 이는 官窯 설치 이후 '天地玄黃', '左右'+干支銘으로 이어지는 朝鮮 官窯의 銘文 시문방법의 始原을 보여주는 것이다. 牛山里 9호 요지를 중심으로 하는 III窯址群은 1466년 6월 백자가 貢物에서 제외되고, 1467년 4월 司饗房이 司饗院으로 개칭되어 官窯가 설치된 이후 운영된 가마들인데, 구체적인 官司名이 없으며, '天·地·玄·黃'과 기물의 體樣인 '見樣' 등의 銘文이 등장하고 있어 관영 사기제조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Abstrac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Usan-ri Kiln Site Group of Gwangju as Revealed in Underglaze Surface Motifs

Kim Bong-jun*

Usan-ri in Gwangju used to be, during the Joseon Dynasty, an important ceramic-producing town, and this town is, besides, referenced in the Geographic Appendix of '*Se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under the name of '*Sosan*'. '*Sosan*' was the special administrative district where pottery wares were produced for supply to the royal house. In recent years, an important array of archaeological evidence was uncovered in this area, casting light on popular underglaze motifs used in Joseon pottery of the 15th century. In the Joseon period, the royal house and the royal court procured pottery either by levying them from kilns nationwide, in the form of tax or tributary payment, or having them donated in the form of gifts. Government agencies in Seoul collecting pottery in the guise of tributary payments included the '*Jangbeunggo*' and '*Yebinsi*', whose names are frequently found in inscriptions on the bottom of pottery wares, the '*Naejasi*' and '*Naeseomsi*', agencies responsible for their procurement both for the use of the royal house and the royal court, and others in charge of procuring them only for the royal house. Prior to 1416, pottery wares levied from kilns across the country were first sent to the '*Saongwon*', in charge of food-related affairs in the royal palace, where they were distributed to their different final destinations, including '*Jangbeunggo*'. Starting from 1417, vessels supplied to the government

* Researcher at the Gyeonggi Ceramic Museum

were required to have the exact names of government agencies. Their names were inscribed on the bottom of each pottery ware so that the government offices received the precise quantity allocated to them in the supply agreement. Potteries were also supplied in the form of gifts to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officials. Potteries were, for example, provided, on a donation basis, to provincial governors, town magistrates or other local officials for events like outdoor banquets and hunting parties. In some cases, they were custom-made ahead of use by the arrangement of the 'Gongjo', the cabinet ministry in charge of industrial affairs. In June, 1466, white porcelains were excluded from the list of goods levied in the form of tributary payment, causing a major change in the mode of acquiring white porcelains by the Joseon court. From this time on, white porcelains were supplied instead by the 'gwanjo', the royal court-sponsored kilns or government kilns. The first government kiln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at least prior to April 1467 when the 'Saongbang', the royal palace cuisine, was renamed the 'Saongwon'. Kiln site group I in Usan-ri, Gwangju, where white porcelain wares bearing government procurement-related stamps such as 'naeyong', 'jong', 'nae', and 'sa' have been discovered, dates from before 1417, when such inscriptions were first added on porcelains. These inscriptions were placed either on the outer surface of a vessel or at the bottom inside a vessel, using the same carving technique used in sexagenary cycle name-inscribed celadons and others like the black inlay and intaglio techniques. Given that the likely location of 'Sosan' mentioned in the Geographical Appendix of 'Sejong Sillok (Veritable Records of King Sejong)', as a low-grade porcelain production site for government procurement, is present-day Gwansan, pottery-making activities may have continued in the kiln site group I as late as 1430, the latest time when the survey for the Geographical Appendix of 'Sejong Sillok' could have been conducted. Meanwhile, kilns belonging to the kiln site group II appear to have been in production prior to 1430, the year when government kilns were first set up. Porcelains bearing a great variety of inscriptions have been unearthed from this area, ranging from 'wang', 'jeon', 'jung' or 'in', which are either names of government agencies or names of their final destinations in the royal palace, to numbers and characters like 'jeon(𠄎)' or 'gwi'. Porcelains bearing such seals as 'wang', 'jung' or 'jeon', or number seals are generally vessels of finer quality, whereas those inscribed with 'jeon' or 'gwi' are wares of coarser quality. 'Wang', 'jeon', 'jung', 'in', 'jeon(𠄎)' and 'gwi' are most often found to be inscribed on the inner side of the foot of a dish, in intaglio. These inscriptions mark the early phase of pottery sealing practices

at Joseon's government kilns, which later evolved to use phrases such as '*Cheonjibyeonhwang* (ebony sky and yellow earth)' and combinations of the character 'left' or 'right' with a sexagenary cycle name. Kilns belonging to the kiln site group III, corresponding to an area surrounding the kiln site 9 of Usan-ri, were set up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government kilns, following the exclusion of white porcelains from the list of goods levied as tributary payment in June 1466 and the renaming of the '*Saongbang*' to the '*Saongwon*' in April 1467. Porcelains discovered in this area bore no particular government agency name, but are instead inscribed with words like '*gyeonyang*', which is a term describing the appearance of a dish. A certain degree of technical sophistication can be, meanwhile, observed in porcelains found at this place, doubtles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kilns were run by the government.